

8명 정원 방에 25명 몰아넣고...이물질 섞은 술 강요하고

대학 새내기들 “MT가 괴로워”

광주·전남지역 일부 대학교의 상식을 벗어난 MT(Membership Training·엔티)문화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숙박과정에서 정원의 세배가 넘는 학생들이 한방에 몰아넣고, 남녀 학생들이 혼숙을 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MT비용이 불투명하게 지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선배들이 냄비에 이물질과 술 등을 섞은 비위생적인 음주까지 강요하는 등 ‘가학적 음주’ 행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대학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남 소재 A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22일 1박2일 일정으로 화순군에 있는 리조트에서 2018학년도 MT를 진행했다.

A대 총학생회는 숙소를 예약할 때 44개 객실 550명으로 통보했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120명이 늘어난 12개 학과 670명이었다. 참석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학과는 정원 8명인 1개 방에 25명까지 숙박을 했다.

일부 학생들은 방 배정과 MT에 사용되는 학생회비의 용처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학생회비가 어떤 기준으로 쓰이는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학생회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름을 요구한 한 학생은 “총학생회가 학기초 학생회비 8만원과 이번 MT를 위해 추가로 3만4000원을 걷은 것도 모자라 본부 입학홍보실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냈는데, 한방에서 25명 이상을 숙박하도록 한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회비에 추가비용 걷고도 부족한 방 배정에 혼숙까지 MT비용 불투명 지출 의혹도 “별주·원샷 등 음주강요 여전 참석하려는 후배 말리겠다” 대학 SNS에선 술 문화 개탄



A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이와 관련, “과 학회장 등과 상의해 방을 배정했는데 일부 유아교육과 등 여학생이 많은 과에서 남학생에게 방을 양보하다 보니 일부 학생들이 한방에 모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A대학교는 광주일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입학홍보실장 주관으로 총학생회 간부들을 소집해 내부적으로 입단문을 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A대학 외에도 광주·전남지역 일부 대학교의 페이스북 등 SNS에는 MT 문화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생은 지난 25일 ‘B대학교 페이스북 대나무 숲(익명 게시판)’에서 ‘엔티 술 문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MT에서 소주, 맥주 등이 섞인 폭탄주에 과자를 뿌리고 침까지 뱉은 선배까지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엔티에 가지 않고 참석하려는 후배를 말리겠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최근 MT 때 소주와 맥주, 음료를 냄비에 섞고 그 위에 과자를 올려 별주로 마셨다”면서 “또 원샷만 외치는 선배들의 술 강요에 실망했다”고 성토했다.

C대학교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도 지난 22일 “지난 15일에 진행한 MT를 하루 앞두고 남녀혼숙이라는 걸 알아 당황스러웠다”며 “남학생은 거실에, 여학생은 방 안에서 잔다고 했으나 그 말이 지켜지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보니 남녀 학생이 뒤섞여 자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름을 요구한 한 대학생은 “MT는 단 시간에 선배배와 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술 강요 등을 생각하면 참여하기 싫어진다”며 “MT 참석 여부에 따라 선배들이 대해주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학생도 많다”고 호소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위생매립장의 변신...광주 동구 다목적체육관 개관



광주시 동구가 소태동 옛 위생매립장 부지에 조성한 다목적체육관 개관식을 열고 26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예산 99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다목적체육관은 최대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배드민턴·배구·탁구·농구·축구 등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무원이 인·허가 필미 상습 성추행”

남원 여성농민, 경찰에 고소장 제출

여성농민이 전복 한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남원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이 여성 농민은 26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공무원을 고발한다”며 1년여간 자신이 당한 성범죄를 털어냈다.

농민 A(여·46)씨는 “지난해 3월 공무

원 B씨가 차 안에서 내 가슴을 만졌고 6월에는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며 “무섭고 두려웠지만 저항하면 앞으로 보조금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B씨는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찾아와 술을 마셨고 집에 갈 때는 나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했다. 모든 성추행은 그

차 안에서 이뤄졌다”며 “잠자리까지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인허가를 필미로 농민을 성추행한 공무원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52)씨는 “A씨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성범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B씨는 “A씨가 공무원인 나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고소와 기자회견을 했다. 더는 참지 않겠다”며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흑산도 좌초 여객선 사고 원인 조사 나서

해경이 지난 25일 짙은 안개속에서 승객 163명을 태우고 항해하다 좌초한 쾌속 여객선의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다.

목포해양경찰은 26일 “좌초사고가 난 ‘핑크돌핀호’(223호)를 목포항으로 예인하고 선장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에 탔던 승객 158명은 현재 목포로 이송됐으며 선장과 선원 등 승무원 5명은 선박 예인을 위해 사고 해역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께 만조를 이용해 민간 어선 2척(4.9t·24t)을 동원, 사고 선박을 예인하려 했으나, 무게감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359t급 크레인바지선

을 동원해 선박을 이동하기로 했으며, 사고 해역은 1000t급 경비함을 배치해 선박 운항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사고 선박은 전날 오후 3시 50분께 흑산을 출발해 목포항으로 이동하다 흑산도 북동쪽 근해에서 좌초했다. 짙은 안개로 사고 당일 오전에는 선박 운항이 통제됐으며 오후 3시께 해제된 틈을 이용해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 구조 후 확인 결과 23명이 타박상 등 가벼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장은 “어선을 피하려다가 바위에 걸렸다. 선체에 1cm 크기 구멍이 뚫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 등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이상은 없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세금 8억원 체납

배우 신은경 회생 신청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신은경(45) 씨가 밀린 세금 7억 96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수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신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연합뉴스

‘길 위의 신부’ 문정현 벌금 대신 노역 자처 이유는

“노동자 생존권 지키는 연대 죄 될 수 없어”

‘길 위의 신부’로 불리는 천주교 문정현(사진) 신부가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자처해 교도소에 수감됐다.

26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에 따르면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 지원 과정에서 무단집입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문신부는 지난 2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로 자진 출두해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노역장 일당은 10만원으로 계산돼 문신부는 8일간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

이다.

문신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함께 지키자는 연대가 죄가 될 수 없기에 벌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며 “단식 중인 쌍용자

동차 감독들 지부장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자진 출두 전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개막하자 암표상 기승

○...광주-기아팬피언 스피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 맞춰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를 판매하려한 40대 여성 2명이 경찰서로

○...2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여·48)씨 등 암표판매상 2명은 지난 24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북구 임동 챔피언 스피드 대표소 주변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암표 유통행위를 했다는 것.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을 부과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진 만큼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 시세가 1억 2천 ◆
매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원룸전문)

◎ 월곡동 신축건물 (최고급)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1분)

총 4층건물
(원룸 12개, 투룸2개)

월수익 550만 예상

◆ 매가 : 8억 5천만 ◆

- 1) 월곡동 산정공원 바로앞(코너) 주인집거주 ▶매가 9억5천만
- 2)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 5천만
- 3)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1) 화순 도곡면 (무인빌)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월수익 5,000만 이상) ▶감정가 39억 → 최저가3억8천
- 2) 광산구 신창동 (월룸빌딩) 토 55평, 건 120평 광주보건대 부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2억6천7백
- 3) 수원지구 (1층상가) 토 101평, 건 65평 국민은행 사거리 위치 ▶감정가 12억7천 → 7억
- 4) 서구 광천동 (주택) 토 92평 건 54평 감정가 1억8천8백 → 최저가 1억8천8백
- 5) 남구 노대동(상가건물)어린이집 감정 4억8천7백→최저 3억4천4백
- 6)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최저가 6억7천
- 7)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원룸)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8) 광산구 신창동 (원룸빌딩)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9)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
- 10) 동구 충정로 (3층 상가빌딩)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4억6천
- 11) 광산구 수원지구 (주차빌딩 1층) 감정가 12억7천 → 최저가 7억천

A.P.T · 주택 · 공장 · 기타 등

- 1)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
- 2)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9천3백 → 최저 1억7백
- 3) 남구 주월동 (무등파크) 25평 감정 1억4천 → 최저 9천8백만
- 4)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 5)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 6) 광산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
- 7)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
- 8) 광산구 삼계동 (공장)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9) 목포시 신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 10)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 교육 (3월초 개강)

경매로 이제부터 돈많이 버세요~

- 1) 무료반 실시 - 오전오후
- 2) 기초반 - 경매기초 + 기본실전(무료교육)
- 3) 실전투자반 - 기초+실전 - 매매까지

1) 기초반 → 경매기초 + 기본실전(무료교육)
2) 실전투자반 → 기초+실전 - 매매까지

경매 가족을 모집합니다!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62)382-5500
010-6670-9800